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저는 예병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비디오테이프를 틀면  
이런 경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에게는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들을 시청함에 따라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서 호환은 호랑이,  
마마는 천연두인데요.

천연두는 예로부터 두창 또는 마마로  
알려져 있던 질병입니다.

과거에 두창 또는 마마로  
알려져 있던 질병이라면

오늘날에도 천연두 대신

두창 또는 마마라 부르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천연두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오늘날 '동해'보다 널리 알려져 있는  
**Japanese Sea(재패니즈-씨)**

일본해가 옛날의 이름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이

일본식 표현인 천연두도  
당연히 두창이나 마마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창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옛날의 기록이 오늘날과 같은  
지식을 갖추고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두창에 대한 문헌상의 최초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추측으로는 수천 년 전  
또는 그보다 전부터

인류에게 두창이라는 질병이  
존재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은 두창의 유행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바람에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게 된 사건과

파렴치한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창을 전쟁 무기로  
사용한 예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개할  
제국주의 국가 중 일부는

**1980**년에 전 세계적으로  
두창 바이러스를 폐기할 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바이러스를 폐기하지 않았고

또 오늘날 자신들의 이야기는 감춘 채

다른 나라에서 두창 바이러스가

생물무기로 개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나라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후

자연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두창은

카리브해 사람들을  
마구 죽음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도미니카와 아이티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두창은

푸에르토리코와 쿠바를 거쳐  
남미 전역으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에르난도 코르테스는

약 **550**명의 병사를 이끌고 쿠바에서  
멕시코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스테카 문명에 번성하고 있던  
오늘날의 멕시코는 금이 풍부하고

아주 부유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지이던

테노크티틀란에 도착한 것은  
그해 11월 초였습니다.

당시 아스텍에서는 건축과 공학이  
고도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에 있는 수도는

큰 호수 중간에 일련의 섬들이  
모여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의 군대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탐과 사원에 놀라서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아스텍인들과 그들의 군주 몬테주마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이 보낸  
사람들로 알고 극진히 대접 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을 창조한 신이  
다시 자신들을 지켜주러 온다는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코르테스는 기회를 보아

몬테주마를 가두어버린 후  
많은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테스는 몬테주마를 대신하여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520년 봄,  
'판 필로 데 나르바에스'가 이끄는

또 다른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 동부 해안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들이 타고 온 배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인 노예로부터 두창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인 1510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온 목적은  
죽어가는 카리브해인들을 대신하여

금 광산과 사탕수수밭에서 일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실어 오는 과정은

상인뿐 아니라 군대가  
관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르바에스의 상륙 소식을  
들은 코르테스는

자신의 군대를 불러 모아  
한판 싸움을 계획했습니다.

같은 나라 군대이긴 하지만

이미 왕의 명령 밖에 있었던 코르테스가

금과 같은 이익을 모두  
혼자 챙기기 위해서는

계급상 더 높은 나르바에스의 군대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코르테스는 승리하였으나

아프리카인들로부터 전해진 두창이

코르테스의 군대에 전파되는 바람에  
전투력이 손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스텍인들은

코르테스가 떠난 후 남아있던  
스페인인들에게 반기를 들어

독립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르바에스는 철수했고  
식량도 부족하고

적당한 배편도  
확보하지 못한 코르테스는

남아있는 군대에 필요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  
즉 원주민을 정복하여

식량을 갈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코르테스는  
아스텍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발했으나

지형에 능하고 군사작전에서도  
그들에게 뒤질 것이 없으며

숫자로는 30배 이상 우세하고

이미 그들을 경험한 아스텍인들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접해본 스페인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스텍인들은

스페인들을 1차 전투에서  
크게 쳐부수었습니다.

코르테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1차 전투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정복하지 못하는 싸움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군대가 모르는 사이에  
적진에 죽어 쓰러진 병사들로부터

아스텍인들에게 두창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창이 유행하면서 아스텍 군대의  
사기가 아주 크게 떨어졌고

싸움에 나서기보다는  
물러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코르테스가 겨우 부하들을 규합하여  
쳐들어간 2차 전투에서부터

전쟁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수주 만에 두창이  
데노크티클란 전역에 퍼져서

전 인구의 약 1/4이 사망하였고

두창은 나라 전체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코르테스의 군대는  
예상을 뒤엎은 승리에 의하여

1521년에 승리의 깃발을  
다시 꽂을 수 있었고

이것으로 아스테카 문명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승리는 스페인 군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두창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살아온

코르테스의 병사들과 달리

면역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스텍 사람들은

우연히 코르테스 병사들로부터  
환자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다 죽어버렸고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1차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도

제대로 전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스페인 병사들에게 나라를 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페루에서 발전한 잉카문명도  
두창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간 것은

1530년의 일이었지만  
그보다 앞선 1527년에

이미 두창이 잉카문명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메리카에서는 군대의 이동속도보다

두창의 전파속도가  
더 빨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닌 잉카의 왕이

북부 도시인 키토를 방문하고 있을 때

수도인 쿠스토로부터 온 전령이  
쿠스토에 두창이 발생하여

많은 왕족과 시민들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쿠스토로 돌아오는 길에  
왕도 두창에 걸려버렸고 결국

“나의 아버지 태양이 부르는 곳으로 간다.

얼른 가서 그 옆에서 쉬어야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그의 아들 들은 서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고

아타우알파가 1532년에  
승리를 쟁취하여 왕에 올랐을 때는

이미 두창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10만 명을 넘은 후였습니다.

그가 왕좌에 오른 직후  
피자로의 군대는

잉카제국 정복에 성공했고  
이를 끝으로 잉카문명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잉카문명 멸망 시 기록에 따르면

두창보다 페스트가 유행한 듯한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발견되는데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두창의 전파경로를 분석해 보면

잉카제국도 두창에 의해  
몰락했다는 설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한편 18세기에 오늘날의  
미국 동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은

중부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및  
곳곳에서 저항하고 있던

프랑스와 인디언 동맹군에 맞서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독립 전이었고

영국 장군 제프리 애머스트는  
카리용 요새를 함락시키려고

두 차례 공격을 퍼부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63년에  
현지의 영국군 장교 에쿠어가

두창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으로부터 입수한

담요와 손수건을 적진에 투입하였고

그 결과 몇 개월 후부터  
오하이오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에게

두창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국군은  
오랜 기간의 접전을 끝내고

카리용 요새를 점령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두창이 전파된 물건을

적진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즉 전쟁용 무기로 사용한  
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50년대에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크리미아 전쟁에서도

두창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우물에 빠뜨려

전쟁 무기로 활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죠.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  
더 이상 두창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인류는 두창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이로서 두창은 인류가  
백신을 이용하여 퇴치한

최초의 감염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두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사망원인의 10%를 차지했던

두창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병이었는지

또 그로 인해 과거 융성했던 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두창이  
다른 역병 즉 전염병과 비슷하게

좋지 않은 귀신 때문에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기가 생겨났는데요.

제사를 지내지 말 것,  
연회나 방사를 하지 말 것,

서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이 있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욕하고

정성으로 두창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때 귀신을 호귀마마,  
손님 등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풍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